

# 박물관 문화



정미조 作, 질주, 2004

## 전시 소식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특별전 《이화, 1970, 정미조》

## 외부 지원 사업 선정 소식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외

## 교육 사업 및 국제학술대회 소식

2023 「KB Dream Wave 2030」과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외  
제7회 이화-예일 학술대회 외

## 기증 소식

## 아트샵 소식

2023 S/S 아트샵 신상품



##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특별전 《이화, 1970, 정미조》

박물관(관장 장남원)은 이화 창립 137주년을 기념하여 5월 17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이화, 1970, 정미조》 특별전을 개최한다. 역사적·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 전통문화재뿐만 아니라 동시대 미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과 전시를 병행해 온 본교 박물관은 화가이자 가수인 정미조 작가의 회화 작품과 앙드레 김 제작 무대의상 기증물 계기로 1970년대 이화여대와 대중문화의 일면도 함께 바라보는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다.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정미조는 1970년대 최고의 디바였으나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후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임하며 후학을 양성하다 퇴직하였다. K문화 콘텐츠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요즘 예술창작의 영역은 전문 예술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 연예인들까지 참여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미조는 음악과 미술의 세계를 넘나들며 현대대에 각광받는 통합적 예술가상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화, 1970, 정미조》전은 정미조의 전국 대학미전 특선작(1971)과 파리 유학시절에 제작한 작품인 <파리풍경>(1979~1981), <세느강가에서>(1981), <상젤리제>(1981), 1982년 제16회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 그랑프리 현대 예술전에서 수상한 <몽마르트르>(1981) 등과 귀국 이후 도시 야경에서 볼 수 있는 빛을 추상화시킨 <City-Night>(2004), <질주>(2004), 서울의 야경을 묘사한 <서울 야경>(2012~2014) 시리즈, 정미조의 자화상, 인물화와 드로잉 등 회화작품들뿐



<정미조 작, 몽마르트르, 캔버스에 유채, 1981>

아니라 가수로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LP 음반, 사진, 앙드레 김 제작 무대의상도 함께 선보여 정미조의 미술과 음악 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미조와 같은 여성 예술가를 배출하며 여성교육의 산실로 자리했던 1970년대 이화의 역사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유물과 사진 자료, 이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도 공개한다.



\* 이 전시의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후원으로 준비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



개막공연

<세대 공감 콘서트 : Museum에서 만나는 1970>

내용은 1970년대 최고의 가수였으며 현재 화가로 활동하는 정미조의 기증품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여성교육의 산실로서 활동했던 이화의 모습과 당시 대중문화의 단면을 함께 살펴보는 《이화, 1970, 정미조》 특별전, 정미조와 초대가수 최백호가 함께하는 개막공연인 <세대 공감 콘서트 : Museum에서 만나는 1970>, 근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예술가의 활동 및 흐름을 살펴보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예술가> 강좌이다. 이처럼 다양한 박물관의 활동에 관람객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은 대학박물관의 문화예술기능 활성화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비롯하여 대학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 복지 및 문화 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본교 박물관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0년 《19세기 조선의 풍경》, 2021년 《식물예찬》 특별전으로 ‘전시 우수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이화, 1970, 정미조》 전시로 5번째 선정된 본관은 사업 참여 우수관으로서 신규 참여관에게 멘토 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선정



“속속들이 : 박물관 유물 이야기”

콘텐츠로 만들어질 박물관 회화 작품들

들로 구성된 “박물관 MZ 서포터즈”들과 함께 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박물관 관련 직업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면서 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소장품 가치와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21세기형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세대와 대학을 넘어 국내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생동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의 『2023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제작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비대면 온라인콘텐츠 수요 확대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된 본 사업에서, 본교 박물관은 2023년 전시와 연계된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별별별: 박물관 전시, 보통과 다른 이야기”, 소장품 연구성과를 보여주며 박물관 유물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속속들이 : 깊은 속까지 살살이, 박물관 유물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 영상들은 본교 융합콘텐츠학과, 미술사학과, 통역번역학과 등 여러 전공의 대학생·대학원생

## 2023년 복식문화 특성화 박물관 협의체 공동사업 선정



1960-70년대 합성섬유 저고리

입었던 마지막 세대가 고령으로 접어들어 따라 오랫동안 장롱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옷이 다시 세상에 나오고 있다. 기증된 옷은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대다수인데, 해방 이후 합성섬유가 보급되면서 전통 한복 소재에서 벗어나 이전 시대까지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과감한 색감과 문양의 한복이 일상에서 착용되었다. 《할머니의 장롱에서 나온 옷》에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상에서 착용했던 한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시대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올 하반기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2023년 ‘복식문화 특성화 박물관 협의체’ 공동사업에 선정되어 《할머니의 장롱에서 나온 옷(가제)》 온라인 전시를 준비 중이다. 복식문화 관련 사업의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된 ‘복식문화 특성화 박물관 협의체’는 2020년 국립대구박물관 외 7개 박물관(2023년 현재 14개 기관)과 맺은 협약이다. 이번 전시는 몇 해 전에 기증받은 자가능 속에 가득 차 있던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 근래 들어 근현대 한복의 기증이 증가하는 추세로, 한복을 일상으로

## 문화재청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학술연구」 4차년도 사업 연속 수행



박물관은 2020년도부터 4년에 걸쳐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학술연구』 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경주 황오동 33호분(1965년 조사), 경주 인왕동 149호분(1973년 조사), 경주 황룡사지 발굴(1969년 조사) 유물에 대한 정리 작업 및 국가 귀속에 관한 학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60-70년대에 발굴조사 했던 유물을 발전된 기술과 환경을 통해 정밀 복원하고 보존 처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술적 연구성과를 제시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2023 「KB Dream Wave 2030」 과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 선정 및 진행



박물관에서는 2019년부터 박물관 노닐기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에 위치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 「KB Dream Wave 2030」과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교육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이상세계를 알아보는 초등학생 체험교육프로그램 <나만의 오색빛깔 씨어터 만들기>와 복식 유물과 전시라는 주제로 박물관 속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는 중·고등학생 교육프로그램 <나만의 전시기획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16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예술가

박물관에서는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예술가>강좌를 마련했다. 총 3회 걸쳐 진행할 본 강좌는 특별전 《이화, 1970, 정미조》와 연계하여 근대부터 현대까지 여성 예술가의 활동 및 흐름을 살펴보는 커리큘럼으로 한국 여성 예술가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일정	강좌	강의제목	강사
6/28(수) (5:00-7:00)	1강좌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 예술가 1 근대 여성 예술가 이야기	조은정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7/26(수) (5:00-7:00)	2강좌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 예술가 2 현대 여성 예술가 이야기	오경은 (상명대학교 교수)
8/30(수) (5:00-7:00)	3강좌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 여성 예술가 3 음악가, 미술가 정미조를 조망하다	윤인복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 문화가 있는 수요일 체험교육프로그램: 나만의 비단 함 만들기



박물관에서는 담인복식미술관 소장품전 《침선針線》과 연계하여 4월과 5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나만의 비단 함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담인복식미술관 학예연구원과 함께 《침선針線》 전시를 관람하며 다양한 바느질 방법과 장식 기법이 담긴 조선 후기 복식들을 살펴보았으며, 자투리 천을 자유롭게 이어 붙여 만든 조각보를 모티브로 나만의 비단 함을 만들어 보며 조각보에 담긴 정성스러운 선조들의 마음과 미감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제7회 이화-예일 학술대회

### 《아시아와 그 너머로 연결된 사물들: 새로운 생태기술을 위한 사물의 융합》



<제7회 이화-예일 학술대회>가 5월 26일 박물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이화인문과학원과 예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아시아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교류하는 행사이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아시아와 그 너머로 연결된 사물들: 새로운 생태기술을 위한 사물의 융합》이며, 미술사뿐 아니라 과학사,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여했다.

## 국제워크숍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시장원리, 공덕, 여성》



박물관과 캐나다 국제인문학사업 프로그래머(FROGBEAR)는 5월19일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시장원리, 공덕, 여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공동개최하였다.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 중국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불교 역사에서 여성이 행했던 다양한 역할을 집중 조명한 이번 국제워크숍은 동아시아 불교학의 국제교류는 물론 차세대 대학원생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증 소식

1970년대 최고의 가수였던 정미조(본교 서양화과 72년 졸업, 前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선생은 작품 30점과 앙드레 김이 제작한 1970년대 정미조 무대영상 14건 17점 등 총 44건 47점을 기증했다. 현재 박물관 특별전에서도 공개되고 있는 작품을 포함한 기증작품은 파리 유학시절 새로운 미술사조의 동향과 조형 양식을 수용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풍경화, 내면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한 감각적인 드로잉, 빠르게 흐르는 불빛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도시야경 시리즈, 높은 시점에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 보며 묘사한 서울 야경 시리즈 등으로, 정미조 작가의 독특한 시각과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파리 풍경>  
캔버스에 유채  
72.2x60.5cm, 1979



<파리 풍경>  
캔버스에 유채  
92x65cm, 1979-80



<Festival-Night>  
캔버스에 아크릴릭  
97x130cm, 2004



<서울 야경>  
캔버스에 아크릴릭  
72x91cm, 2013

최속경(前이화여대 박물관장) 사회생활학과 명예교수는 1900년경 제작된 의결이 장과 경기도 반달이 등 5점을 기증했다. 밤나무로 만들어진 의결이 장은 2층 아자(亞字) 창살문 중앙에 아름답게 채색된 화조도 유리를 한 장씩 삽입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다. 반달이는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으며 'ㄴ'자형 거머잡이와 마름모형 장식, 물고기 형태의 배꼽 장식을 신주(宀)로 두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내부 천판 밑에는 크고 작은 서랍 5개를 만들어 실용적인 면까지 갖추었다. 이 가구는 최속경 교수의 외조부인 오금선(1878-1963) 선생께서 1912년경 세브란스 교수로 부임 받아 서울에서 살림을 장만할 때 마련하였던 것으로, 외조모 박현진님께서 모친 오기순(1908-1997)님께 대대로 물려주신 귀중한 유물이다.



<반달이>  
높이 106cm, 1900년 경



<의결이 장>  
높이 170.6cm, 1900년 경

서대식(유물 기증자) 선생은 근대 도자 및 『오타니컬렉션 서역유물 사진집』 등 총 6건 6점을 기증했다. 근대 도자기는 청화안료와 스텐실기법을 사용하여 장식한 <백자청화 운룡문 호>를 비롯하여 1920년대 전후로 분원자기(汾院磁器)주식회사, 여주가마, 청송가마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이다. 함께 기증하신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오타니컬렉션의 서역유물 사진집』 60면본은 중앙아시아 불상, 벽화, 도자 등의 유물사진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백자청화 운룡문 호>  
높이 21.7cm, 20세기 초

최신자(본교 체육학과 16회) 동문은 시어머님께서 사용하시던 나전주칠 이층 농(蠟細朱漆二層籠)과 분청사기를 모교에 기증했다. 이층 농의 전면에는 십장생, 꽃, 식물 문, 봉황과 용 등 상서로운 동물이 나전과 주칠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손기정, 남승룡 등 조선인 육상 선수들의 1936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관철시켰던 시아버님 이상백(1904-1966)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행적과 그분의 형제들인 독립운동가 이상정,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 수렵인 이상오 선생 등 일제강점기 가족과 민족 이야기를 전하시며, 이상백 교수가 남기신 중국도자 도록 3권도 함께 기증했다.



<나전주칠 이층 농>  
높이 91.2cm

미국에 거주 중인 이현지(본교 교육학과 88년 졸업, 석전육영재단 이사장) 동문은 자매들과 마음을 모아 모친 정연수(본교 교육학과 61년 졸업) 동문의 유품을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한국미술사 연구자들을 위한 '정연수 미술사학과 장학금'을 조성하였다. 이는 부친 故이인혁 석전육영재단 이사장님께서 부인과 세 딸의 모교인 이화에 '정연수 장학금(교육학과)'을 후원한 것을 따른 것이며, 현재도 두 장학금은 계속되고 있다. 연이어 이현지 동문과 부군 조원식님은 시어머니인 故 김혜경 섬유예술전공 명예교수님의 작품과 자수, 회화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고귀한 뜻을 밝히셨으며, 그에 따른 해외운송 비용 일체를 추가로 기부했다.



정연수 기증품 <백태호 作 놀이> 앞에서 이현지동문, 조원식님, 장남원박물관장

## 2023 S/S 아트샵 신상품

1995년 대학박물관으로는 처음 문을 연 이화여대박물관 아트샵은 그간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과 자체개발 상품들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해왔다. 3년여 코로나 기간을 거쳐 2023년 봄, 다시 문을 연 아트샵에서는 공예가들의 새로운 장신구와 패션 소품들, 문구류와 생활용품 등 전시와 연계한 새 상품들을 선보인다. 특별전 《이화, 1970, 정미조》와 연계해 자개공방 소목소복과 합작한 '배꽃 자개 티 코스터'와 젊은 작가들과 협업한 '배꽃 도자기 향꽃이',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백자 달 향아리를 축소한 'miniature 백자 달 향아리', '배꽃 매듭 키홀더', 소장품 '렌티큘러 카드' 등이 새롭게 제작되어 선보이며 정미조의 드로잉집, 음악 책자, 앨범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박물관 아트샵은 계속해서 다양한 아트 상품 개발과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고 박물관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배꽃 도자기 향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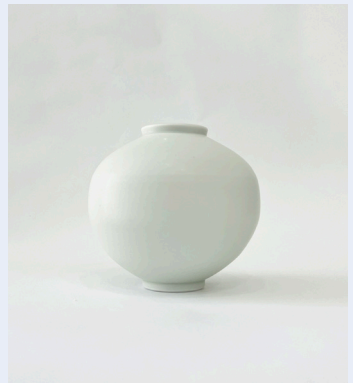
패브릭 꽃병 커버



배꽃 자개 티 코스터



배꽃 매듭 키홀더



miniature 백자 달 향아리